

# 강진 매생이 가공식품 인기...어민 소득도 ‘쑥쑥’

서울·인천 등 전국 각지서 주문 쇄도

조합법인, 연간 220t 가공 35억 매출

강진 매생이 가공식품이 뜨고 있다.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에 위치한 강진만 영여조합법인(대표 권영목)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쇄도하는 제품 배송 요청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강진만 영여조합법인은 겨울에만 맛볼 수 있는 매생이를 매생이탕, 매생이 떡국, 매생이 죽, 매생이 분말 등 고부가 가치를 가진 다양한 가공품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다. 특히 매생이의 영양성분은 파괴하지 않고 위생적인 HACCP 생산시설

을 이용해 동결 건조시켜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한겨울의 매생이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더욱이 끓는 물에 5분이면 조리해 바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맞벌이 부부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강진만 영여조합법인은 2005년 제품개발을 개발한후 이듬해 공장을 설립해 연간 매생이 220t을 가공, 유통해 연매출 3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어 “예전에는 산지에서 채취한 매생이를 제철인 겨울에만 먹을 수 있었지만 원료를 영하 40도에서 급

담양 대나무박람회  
통역 자원봉사자  
영어 등 100명 모집

담양군이 2015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의 성공개최를 위해 통역부문 자원봉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영어 60명 ▲중국어 20명 ▲일본어 20명 등 총 100명이다. 외국어로 일상회화가 가능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봉사자로 활동이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3월 11일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필기시험과 회화 테스트 등 선발고사를 거쳐 선발된다. 최종 선발된 봉사자는 상·하반기로 나뉘어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7주간 외국어 회화 위탁교육을 받게 된다.



**강진군, 중학생 홍보대사 위촉** 강진군이 지난 13일 군청회의실에서 제6기 해외 단기 어학연수 결과보고회를 갖고 있다. 군은 미국과 필리핀에서 한달간 어학연수를 마친 관내 중학생 21명을 학생 홍보대사(영어부문)로 위촉했다. <강진신문 제공>

‘장성 꽃감 품질 고급화 매뉴얼’ 책으로 펴내

장성군이 고품질 꽃감 생산기술을 정립하기 위한 책자를 제작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꽃감 산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

해 꽃감에 관한 기본지식부터 재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상세히 기술된 ‘장성꽃감 품질 고급화 매뉴얼’을 펴냈다. 군은 지난해 3월 관련부서 담당자

희망자는 군 홈페이지 게시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군 자체행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담양군은 2015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죽녹원 일원에서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세계 대나무박람회를 개최한다. /담양=정재근기자 jigg@

**전북**



장병들 노인요양시설 ‘위문공연’

공군 8351부대...송산 효도마을 방문 후원금품 전달도

공군 8351부대(대대장 이영길)가 지역주민과 소의계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 공군 8351부대원들은 최근 부안군 주산면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송산 효도마을을 방문해 후원금품을 전달하고 위문공연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부사관과 병사들은 평소 밴드와 댄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준비한 갖가지 장거들을 선보이며 어르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허재주 선임사는 “부대 부사관

과 병사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청소활동과 제조작업, 김장, 행사지원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자원봉사 활동이 병사들의 인성함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길 대대장은 “무엇보다 부대원의 위문공연에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게 모습을 보니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 올 남원 춘향제 5월 1일 ‘팡파르’

‘사랑이야기, 남원에 물들다’ 주제...엣새간 광한루 일원서

‘춘향 길놀이’ ‘용마싸움’ 등 전통문화 예술축제 강조

오는 5월 열리는 남원 춘향제가 지역주민과 지역문화예술인 중심의 시민참여형 전통문화 예술축제로 치러진다. 남원시는 ‘사랑이야기, 남원에 물들다’를 주제로 5월 1일부터 6일까지 광한루원 일원에서 제84회 춘향제를 개최한다. 제84회 춘향제추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지난 14일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 축제는 ▲전통문화 행사 ▲공연·전시예술 ▲놀이·체험 행사 ▲부대행사 등 크게 4개 분야 29종목에서 다채롭게 마련된다. 올해 축제는 메인 무대를 광한루원으로 배치해 광한루원 철조조경의 자연경관과 요천변의 다양한 야간조

명, 조형물을 설치해 환상적인 축제장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올해 춘향제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춘향제 본연의 전통문화예술 축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춘향제 프로그램 중 가장 눈여겨 볼 품목은 ‘춘향 길놀이’다. 춘향제 행사의 중심종목인 길놀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남원의 전통민속 남성놀이인 용마놀이를 고증 복원해 길놀이 퍼레이드와 용마싸움을 재연하고, 외부 유명 길놀이 단체 팀을 초청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스 춘향은 사전 선발해 개막식, 길놀이, 포토타인 등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

이다. 국악대전은 경원위주를 탈피해 관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창작국악, 퓨전국악, 마당극 등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모색한다. 로드 페스티벌, 춘향사랑 가족 건강걷기대회, 마당극 공연, 춘향 풍물커플게임, 이몽룡 과거시험, 사람나눔 우체통, 축제체험 영상 만들기 등의 새로운 체험·공연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이다. 안숙선 제진위원장은 “초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새롭게 변화하는 춘향제를 만들어 전국 최고의 전통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시장은 “축제의 중심은 바로 남원시민”이라며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춘향제를 다시금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축제로 부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순창군, 신재생 에너지 보급 나선다

태양광 전문기업 2개사와 380억 규모 MOU 체결

순창군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순창군은 최근 군 영성회의실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전문기업인 한화큐셀코리아(주), 티에너지(주)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군과 태양광 발전시설 전문기업 관계자들은 군의 에너지 자립 생산 시설 확충과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화큐셀코리아(주)와 티에너지(주)는 380억원

을 2017년까지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군내 마을 공동시설이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게 된다. 군은 kW당 2만5000원의 임대료를 받게 되면 연간 2억5000만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부가세공에 따른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한화큐셀코리아(주)와 티에너지(주)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1억 원을 투자해 금관마을과 방축마을, 순창 웰빙 아파트에 3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기로 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제84회 남원 춘향제가 ‘사랑이야기, 남원에 물들다’를 주제로 5월1일부터 6일까지 광한루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중 ‘춘향 선발대회’ 모습.

## “임권택 영화에 빠져 보세요”

장성군 ‘임권택 시네마테크’ 내달 개관

장성출신 한국 영화계의 거장(巨匠) 임권택 감독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시네마 테크가 오는 3월 문을 연다. 장성군은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해 장성호 관광지에 조성한 ‘임권택 시네마테크’를 다음달 개관한다고 밝혔다. 시네마테크는 지상 3층(1147㎡) 규모로 영화 상영관과 전시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보조공간으로 지어지는 캠프동은 내년 상반기쯤 준공될 예정이다. 군은 ‘임권택 시네마테크’ 개

관으로 장성호 주변개발 사업과 연계해 지역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006년 장성호 관광지에 임권택 영화감독 조형물을 제작한 바 있다. 한편 장성군 남면 출신인 임권택 감독은 한국 영화사상 첫 100만 관객을 기록한 ‘서편제’(1993년) 등 100여편의 작품을 남겼으며, 2002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나주 산림조합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3000만원 전달

나주시 산림조합이 지역인재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나주시 산림조합 강희식 조합장과 임원진은 최근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있는 임성훈 시장에게 “산림사업 경영수익 일부를 지역발전과 지역인재육성에 유용하게 써달라”며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진> 임성훈 나주교육재단이사장은 나

주시 산림조합의 아름다운 선행에 감사로 표하며 “장학금 기부운동이 확산돼 지역 인재육성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산림조합은 매년 산림사업 수익금 가운데 일정금액을 (재)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0여만원을 기탁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단신**

울 지방소방공무원 67명 선발

전북도는 올해 지방소방공무원 67명을 선발한다. 선발료는 남자 60명, 여자 7명이며 분야별로는 소방 36명, 구급 21명, 구조 6명, 차량정비·소방헬기 조종 각 2명 등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에 거주하거나 도내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3월 11~13일이며, 4월 26일 필기시험을 거쳐 6월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 연령이나 시험 과목 등에 대한 문의는 행정지원관실 시험관리담당(063-280-4218)이나 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를 참고하면 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정읍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13명 모집

정읍시가 3월 25일까지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베이스 파트 13명이다. 참가자격은 현재 만18세 이상 58세 이하인 자로, 성악능력을 갖추고 합창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합창단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서접수를 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오는 27일 실기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문의(063-539-6414) /정읍=백성기자 parkks@

순창 내달부터 주택 음식폐기물 종량제 시행

순창군이 3월 3일부터 읍 시가지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읍 시가지가 골목이 많은 것을 감안해 소형 수거차량을 구입하고 인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참여 예상 세대는 1000여 가구이다.

대상 세대들은 분홍색 전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관리자 이름이 적힌 보관용기를 이용, 지정된 날짜에 대문 앞에 내 놓으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 하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6t가량으로, 이중 수거 처리해야 할 물량은 3에 달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서울 남원 장학숙 입소 학생 추가 모집

서울 남원 장학숙이 자격기준을 완화해 입소 학생들을 추가모집한다. 남원 장학숙은 지난 14일까지 입사생을 모집했으나 정인 68명 가운데 61명만 접수함에 따라 17일부터 3월까지 추가 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자격기준은 ▲남원시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남원시내 초·중·고교

졸업자 중 관의 고교 졸업(예정)자 ▲남원 시내 초등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최종 선발된 학생은 2015년 2월까지 생활할 수 있으며, 입사비 7만원 등 월 15만원(급식비 포함)을 내면 된다.문의(063-620-6936) /남원=백성기자 bs8787@